나성범 "난 타이거즈맨, 목표는 우승"

지난 29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프로야구 SSG 랜더스와 KIA 타이거즈의 시범경기에서 KIA 나성범이 1회말에 투런홈런을 때리고 있다. /연합뉴스

"KIA 팬들 뜨거운 함성 원정이 아닌 홈경기여서 더 좋아"
"홈런엔 자신있어 … 개막전부터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

KIA 타이거즈 나성범이 2022시즌 준비를 끝내고 팬들을 기다리고 있다.

KIA는 4월 2일 챔피언스필드에서 LG 트윈스를 상대로 2022시즌 개막전을 치른다. 코로나19로 2년 연속 무관중으로 개막전이 진행됐지만 이번 개막전에는 팬들이 함께한다.

'나스타' 나성범을 새 식구로 맞게 된 팬들의 가슴도 설레지만, 팬들을 기다리는 나성범의 마음도 특별하다.

나성범은 "3년 만에 팬들이 개막전에 들어오셔서 새롭다. KIA 팬분들이 워낙 많은데 그런 함성은 처음 듣게 된다"며 "원정이 아닌 홈경기여서 더 좋다. 지금은 긴장 안 되는데 개막 당일, 그 전날부터 긴장 많이 될 것 같다. 매년 그랬다. 하루하루 개막이 다가올 때마다 그랬다"고 개막전을 기다리는 마음을 이야기했다.

또 "지난 2년 무관중으로 시작했고 그러다가 팬분들이 중간에 들어왔다. 그런 부분이 달라져서 어떻게 보면 우리 팀에도 장점이 될 수 있다. 팬들의 많은 응원을 받고 분위기 타서 첫날부터 좋은 경기하면 좋겠다. 일단 큰 부상은 아니지만 갑작스러운 부상이 있었다.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한 시즌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성범은 지난 28일 SSG 랜더스와의 시범경기에서 오원석의 공에 어깨와 얼굴을 맞는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병원 검진 결과 큰 이상은 없었지만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한 아찔한 장면이었다.

나성범은 이날 그라운드에 복귀해 특별 타격 훈련을 하면서 개막 준비를 이어갔고, 29일에는 첫 타석에서 담장을 넘기면서 사구 후유증 우려를 완전히 털어냈다.

'슈퍼스타'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준 나성범은 계획대로 시즌 준비도 잘 끝냈다.

"캠프 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만족하면 안 된다"며 뜨거운 캠프를 치렀고, 시범경기 기간에도 개막에 맞춰 차분하게 페이스를 잘 끌어올렸다.

나성범은 "홈런이 안 나왔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했을 것이다.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자신 있다"며 "별생각 없이 좋은 타이밍에 개막에 맞춰 컨디션이 올라올 수 있도록 맞춘다. 시범경기 때도 훈련량을 늘리는 편인데 조금씩 양을 줄이면서 4월 2일에 맞추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KIA 나성범이라는 이름으로 뛰는 첫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서 욕심이 더 생겼다.

나성범은 "새로운 도전을 위해 여기에 왔다. 팀도 나를 원했기 때문에 여기에 왔다. 나도 팀이 생각하는 것도 우승 도전이다. 우승은 어느 팀이든 당연히 원한다. 이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좋은 기록 세우고 팀 우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새 팀에 완벽하게 적응하면서 '타이거즈맨'이 다 됐다.

나성범은 "팀에 어린 선수들이 많다. 황대인을 위주로 분위기를 띄우는데 서로 정말 친하게 지낸다. 그 점이 좋았고,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적응돼서 나도 같이 장난도 친다. 어린 선수들이 지금은 말도 많이 걸고 처음 여기 왔을 때보다 많이 편해지고, 좋다"고 웃었다.

준비는 다 끝났다. 나성범은 4월 2일 팬들과 새로운 역사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나성범은 "며칠 안 남았는데 개막전부터 많은 팬분들 오셔서 많은 응원 해주시면 좋겠다. 그 응원에 힘입어 올 시즌 좋은 성적, 작년보다는 더 좋은 성적으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벤투호, 중원 패스워크·세트플레이 살려야

UAE에 0-1 충격패

아랍에미리트(UAE)전은 거듭된 승전에 따른 찬사에 가려진 벤투호의 '불안 요소'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소득을 올린 경기였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29일 오후(이하 한국시간) UAE 두바이의 알막툼 경기장에서 킥오프한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A조 10차전 원정경기에서 UAE에 0-1로 졌다.

이전 9경기에서 6골에 그친 UAE는 예상대로 수비에 중점을 둔 축구를 펼쳤다.

UAE는 두 줄 수비라인으로 손흥민(토트넘), 황희찬(울버햄프턴), 황의조(보르도)의 '삼각 편대'를 막아섰다.

여기까지는 벤투호가 이전 최종예선 경기에서 여러 번 경험해 본 상황이었다. 벤투호를 힘들게 한 것은 UAE의 효과적인 압박이었다.

안타깝게도 정우영(알사드)은 UAE의 압박에 잘 대처하지 못했다. 함께 중원을 구성한 이재성(마인츠), 권창훈(김천)도 공격 전개가 매끄럽지 못한 건 마찬가지였다.

중원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자 손흥민과 황의조가 3선까지 내려와 연계 플레이에 나서는 장면이 적잖게 나왔다. 벤투호가 자랑하는 중원의 패스워크가 아닌, 좌우 풀백의 임기응변식 공격 전개에 의존했다. 공격은 계속 무뎌질 수밖에 없었다.

발가락 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미드필더 황인범(카잔)의 빈자리가 커 보였다.

황인범만큼 검증되지는 않았지만, 그처럼 패싱력과 템포 조절 능력을 겸비한 백승호, 김진규(이상 전북)가 나란히 코로나19로 자리를 비운 것도 아쉬운 점이다.

코로나19가 벤투호의 '아킬레스건'을 제대로 드러낸 셈이다.

황인범이 없을 때 중원을 어떻게 꾸려야 할지는, 벤투 감독이 본선까지 남은 8개월 동안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붙박이 원톱' 황의조가 결국 무득점으로 최종예선을 마친 점도 벤투 감독에게 고민거리일 것으로 보인다.

황의조는 최종예선 10경기 중 8경기에 나섰으나 한 골도 넣지 못했다.

벤투호가 세트피스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벤투호는 16차례나 코너킥을 얻어냈지만 한 번도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UAE는 코너킥을 한 번도 차지 못했다.

한준희 축구 해설위원은 "전반적으로 컨디션, 체력, 집중력 저하와 선수 부족이 불안한 볼 키핑, 전열의 간격 유지 실패, 뒷공간 허용 등의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또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는 데드볼 상황이 매우 소중한 만큼, 세트플레이를 더욱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U-19 대표팀, 광주FC 정종훈 눈에 띄네

인니와 평가전서 멀티골

광주FC의 정종훈이 한국 남자 19세 이하(U-19) 대표팀에서 '슈퍼루키'의 모습을 보여줬다.

김은중 감독이 지휘하는 U-19 축구대표팀이 지난 29일 대구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하나은행 초청 인도네시아 U-19 대표팀과 평가전에서 5-1 대승을 거뒀다.

금호고 출신의 광주 신인 정종훈이 멀티골을 장식하면서 사령탑 데뷔전에 나선 김은중 감독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김은중 감독은 지난해 12월 지휘봉을 잡았다.

이날 강민재(연세대) 강성진(서울)과 공격을 담당한 정종훈은 전반 9분 선제골을 작렬했다.

이승원이 왼쪽에서 내준 패스를 받은 정종훈이 골 지역 정면에서 공을 잡은 뒤 오른발 터닝 슈팅을 날리면서 골대 왼쪽을 갈랐다.

정종훈은 강성진의 왼발 논스톱 슈팅으로 2-0으로 앞선 전반 15분 두 번째 골을 선보였다.

페널티지역 바로 앞에서 정종훈이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날렸다. 골키퍼 바로 앞에서 바운드 된 공은 그대로 인도네시아 골대로 향했다.

정종훈

정종훈의 멀티골로 일찍 흐름을 기울인 한국은 후반에 나온 최성민과 이승원의 골을 더해 5-1 대승을 완성했다.

이날 승리로 '김은중호'는 2023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을 향한 순항을 시작했다.

대표팀은 오는 9월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U-20 아시안컵 예선을 통과한 뒤 내년 열리는 이 대회 본선에서 4위에 들면 U-20 월드컵 출전권을 얻게 된다.

한편 정종훈은 금호고 졸업과 함께 우선 지명으로 광주 유니폼을 입은 기대주다.

1학년이었던 2019년 K리그 U-18 챔피언십과 2019 전국고교 왕중왕전에서 전국대회 2연패에 기여했고, 2020 K리그 주니어 B조 우승 주역으로도 활약했다.

2021년에는 팀의 주장으로 금호고의 K리그 U-18 챔피언십 준우승을 이끌었다.

2020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정종훈은 연령별 대표팀에서 활약하며 한국 축구의 미래로 주목받고 있다.

정종훈은 이번 활약으로 소속팀 이정효 감독의 눈길도 사로잡으면서 프로 데뷔전을 위한 걸음을 재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명가(名家) 타이거즈' KIA, 2022 팬북 발간

KIA타이거즈가 2022시즌 팬북을 발간했다.

출범 40주년을 기념해 '명가(名家) 타이거즈'라는 콘셉트로 '온택트(Ontact·온라인 대면) 팬북'을 구현했다.

팬북 표지는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구단의 상징 컬러인 '미드나잇 블랙'을 바탕으로 해 11차례의 우승 연도 그래픽 속에 포효를 준비하는 용맹한 호랑이의 모습을 표현했다.

명가의 전통과 명문 구단의 위상을 되찾아 새로운 타이거즈 시대를 열겠다는 강력한 의미를 동시에 담았다.

이번 팬북은 창단 40주년을 맞아 타이거즈의 40년사를 정리하고, 화보를 통해 옛 영광을 추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수들의 개인 화보, 다양한 인터뷰 등 읽을거리도 풍성하다.

지난 시즌 결산과 올 시즌 전망을 비롯해 새 사령탑 김종국 감독이 추구하는 '팀 퍼스트(Team first) 야구'를 인터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FA 계약 소식으로 스토브리그의 주인공이 된 나성범과 양현종, 타이거즈 역대 단 두 명뿐인 '신인왕' 이순철과 이의리의 동반 인터뷰도 담겼다.

새 외국인 선수 소크라테스 브리토, 션 놀린, 로니 윌리엄스도 팬북을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전한다. '블랙 타이거즈' 응원단 화보도 실렸다.

KIA는 팬들과의 소통을 위해 주요 선수들의 프로필 사진과 함께 '시크릿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은 팬북에 수록된 QR코드를 통해 만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선수별 QR코드를 찍으면 '몸으로 말해요', '응원가 부르기', '종이비행기 날리기', '60초 인터뷰' 영상 등 선수들의 다양한 매력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팬북은 5000부가 발간됐고, 케이엔코리아 타이거즈 라인숍에서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내 타이거즈숍에서도 판매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스필드 LED 조명 교체
다음달 6일부터 공식 가동

2022 프로야구 개막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 홈구장 조명이 발광다이오드(LED)로 전면 교체됐다. 광주시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 내 조명기구 312개를 메탈할라이드에서 LED로 교체하는 공사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LED 조명은 빛이 덜 퍼져나가기 때문에 야간 경기 때 인근 주민들이 겪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광주시는 기대했다. 기존 조명은 램프가 점등되는 데 10분 정도 소요되지만, LED 조명은 즉각 점등할 수 있다.

홈런을 치면 'HR' 글자를 구현하는 등 이벤트 조명으로 관람의 재미도 더할 것으로 보인다. 김선자 광주시 체육진흥과장은 "선수와 관람객 편의 제공은 물론 빛 공해 저감, 에너지 절감 효과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조명은 다음 달 6일 오후 6시30분 열리는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에서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손흥민, EPL 몸값 8위
추정 이적료 1074억원

'손세이셔널' 손흥민(30·토트넘)이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즐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몸값 8위를 유지했다.

축구선수 이적료를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 트랜스퍼마르크트는 29일(현지시간) EPL 선수들의 추정 이적료를 새로 산정해 업데이트했다.

손흥민의 이적료는 8000만 유로(약 1074억 8000만원)를 유지했다. 당장 올여름 이적시장에서 손흥민을 영입하고픈 구단은 토트넘에 8000만 유로는 줘야 데려갈 수 있다는 의미다.

손흥민의 몸값은 2020년 12월 9000만 유로(1209억5000만원)를 찍은 뒤 조금씩 하락했다.

축구 선수 이적료는 20대 후반을 전후해 정점을 찍은 뒤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다.

손흥민은 지난 시즌 정규리그에서 17골을 넣어 '커리어 하이'를 찍었고, 올 시즌에도 13골을 터뜨려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달성했다.

/연합뉴스